INDEX

SUB	DESCRIPTION
Indi Machine	PM-1b ; paper maker type 1 -b
	AE-2 ; audio equipment type 2
	FW-2 ; flexible watch type 2
	EEF-1 ; expended electic fan type 1
	OB-Elevator ; open button elevator
	AE-1
	Automatic Door
	FW-1
	Anti Zoom Camera
Preface	테크놀로지의 변주 - 신승오 (덕원갤러리 큐레이터)
	The Variation in Technology - Shin, Seung oh
Profile	

indi machine

최 종 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대학원 수료 2010

개인전
Indi Machine , 덕원갤러리 2010

Choi, Jong-ha

B.F.A Fine Art Colle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Exhibition

Indi Machine , Gallery Dukwo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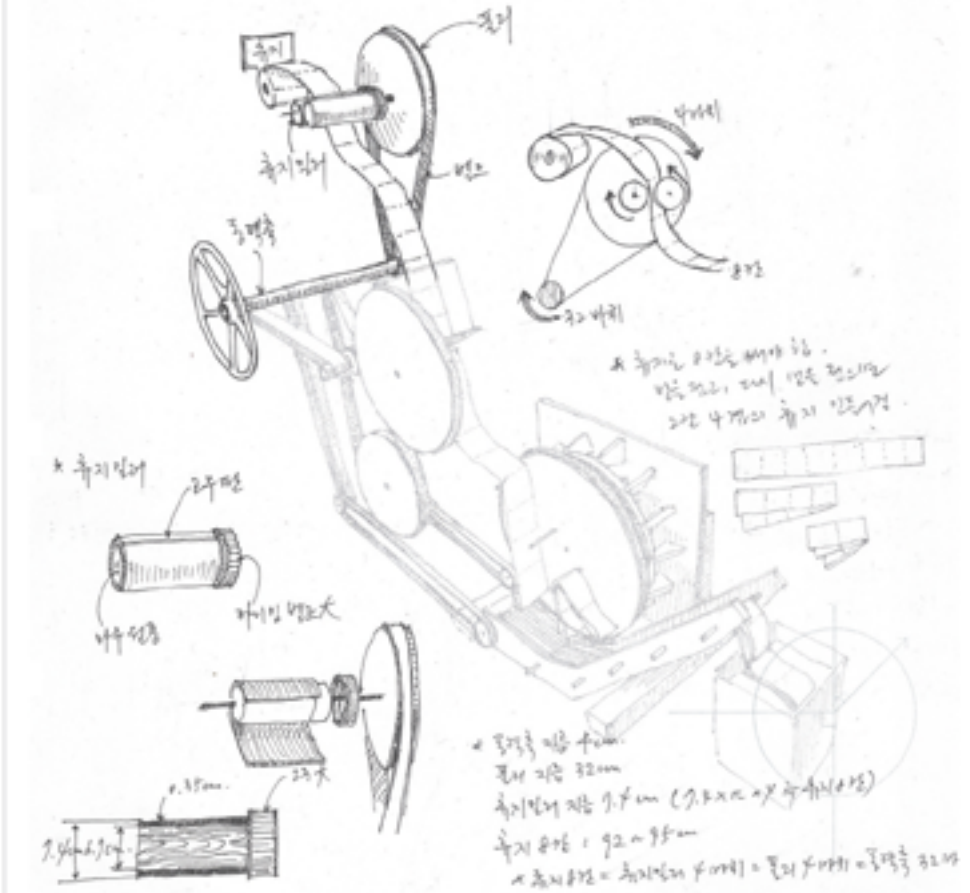
Design featured by downLiet

w89stone@naver.com 019_503_2461 photo by Lee, Jung woo

휴지를 풀기 위한 기계 드로잉

indi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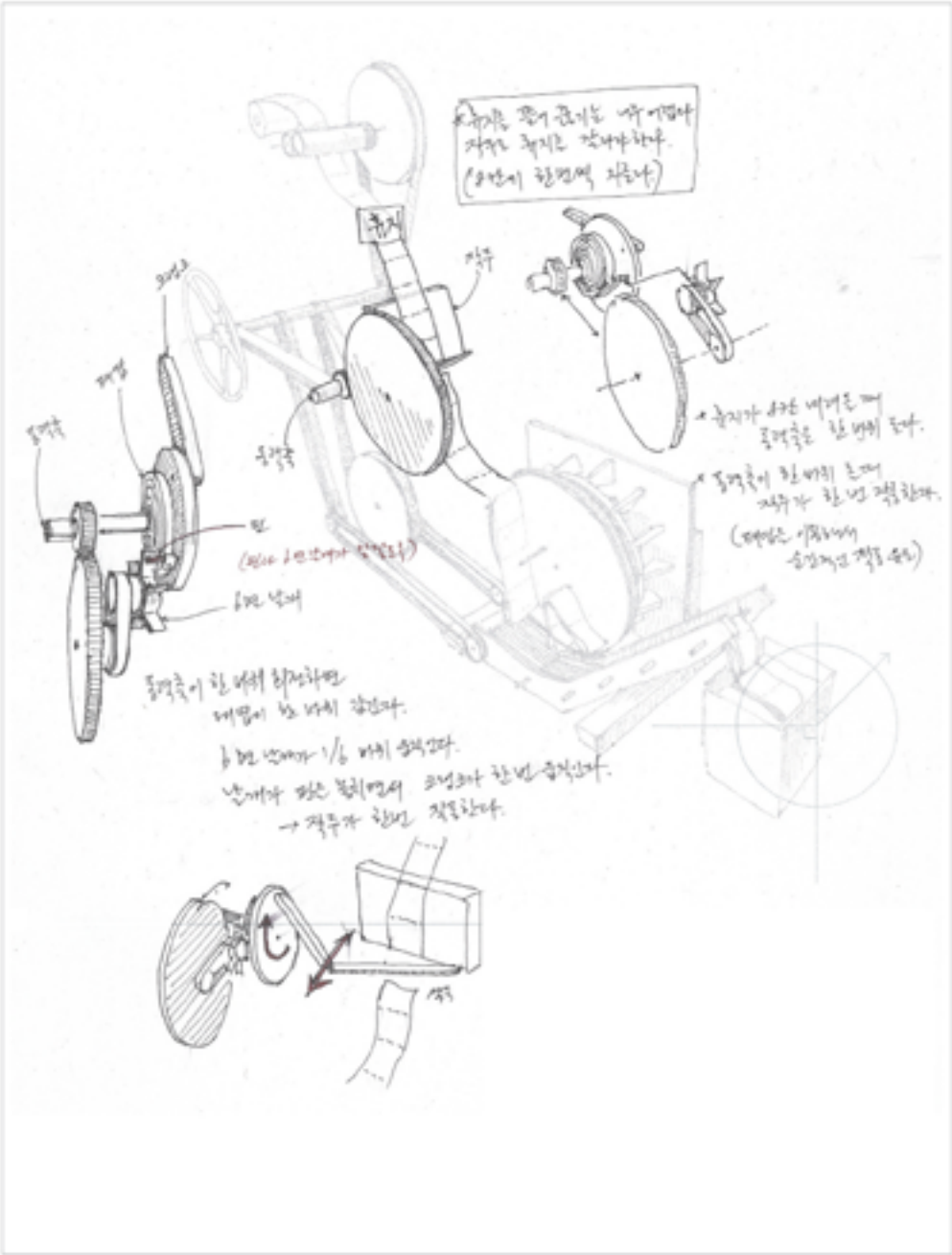
SUB. NO. DATE.



휴지를 감기 위한 기계 드로잉

indi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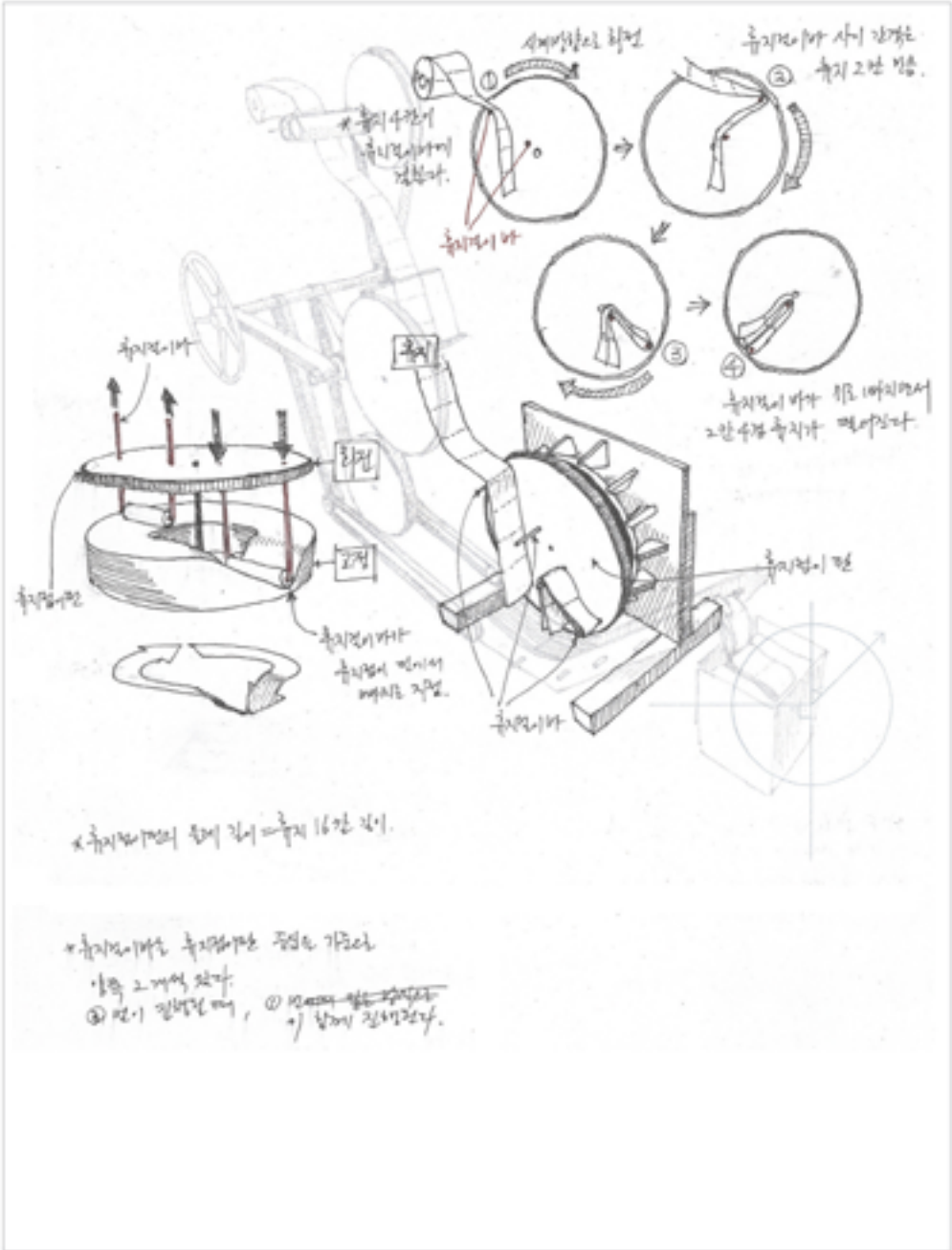
SUB. NO. DATE.



휴지를 접기 위한 기계 드로잉

indi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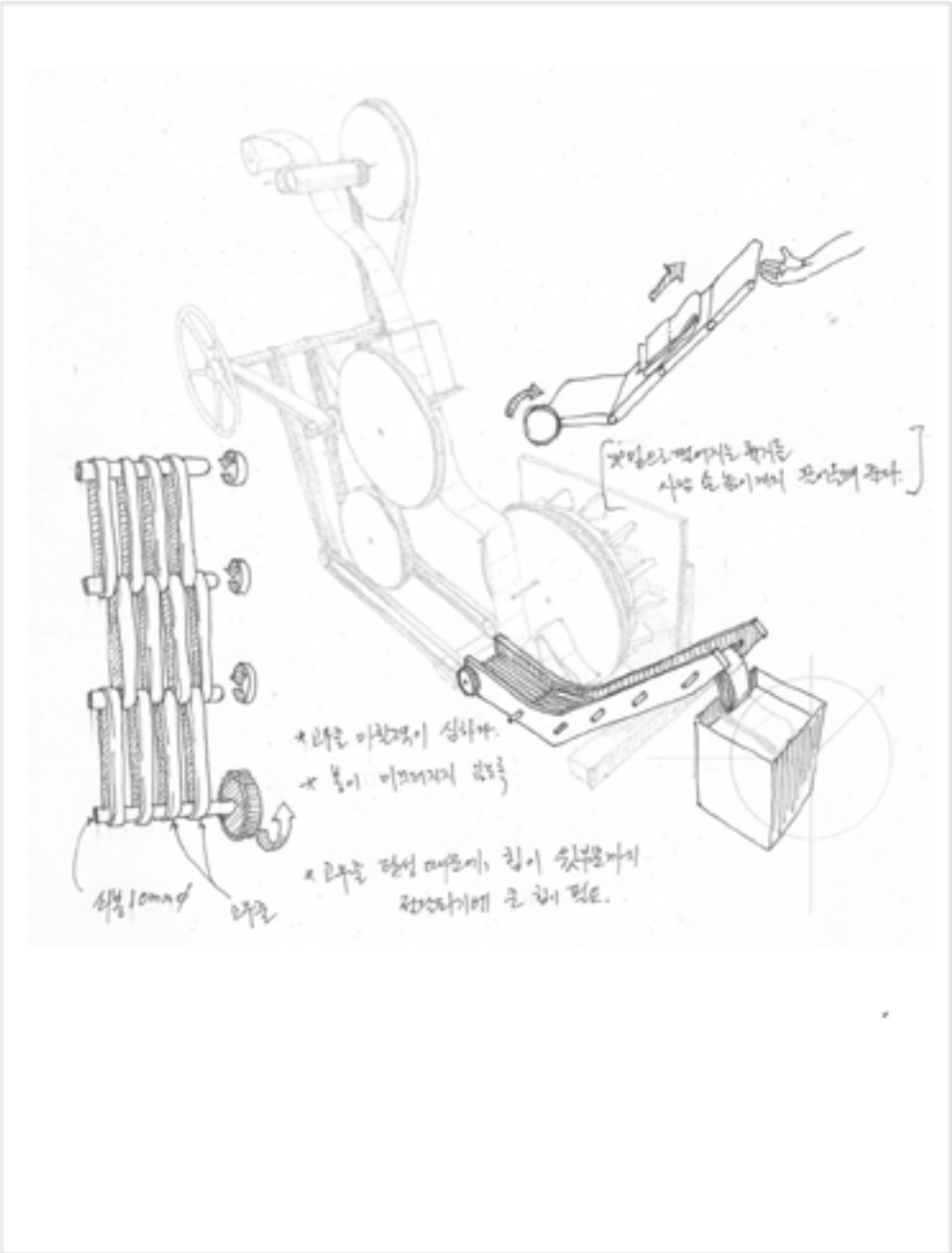
SUB. NO. DATE.



휴지를 올리기 위한 기계 드로잉

indi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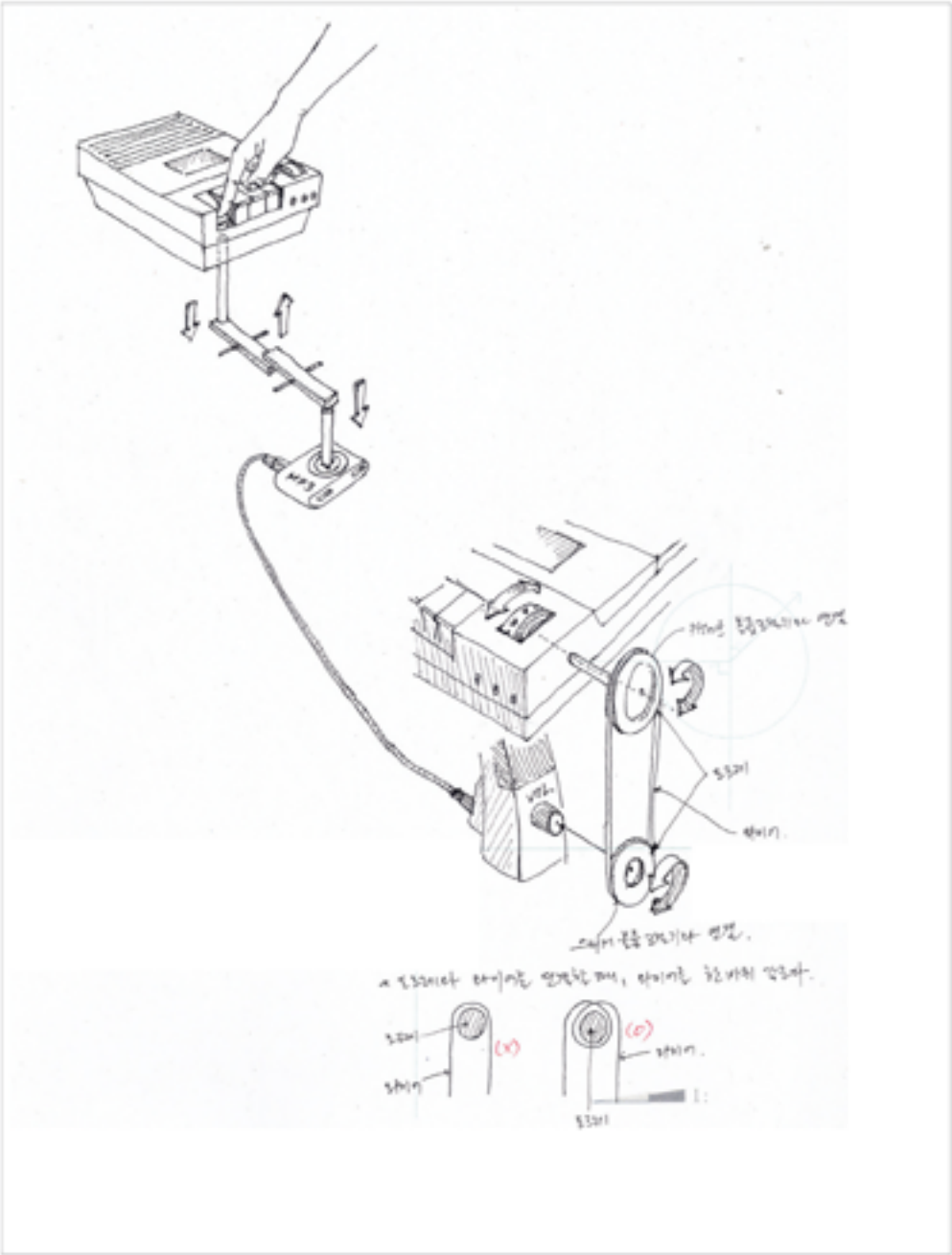
SUB. NO.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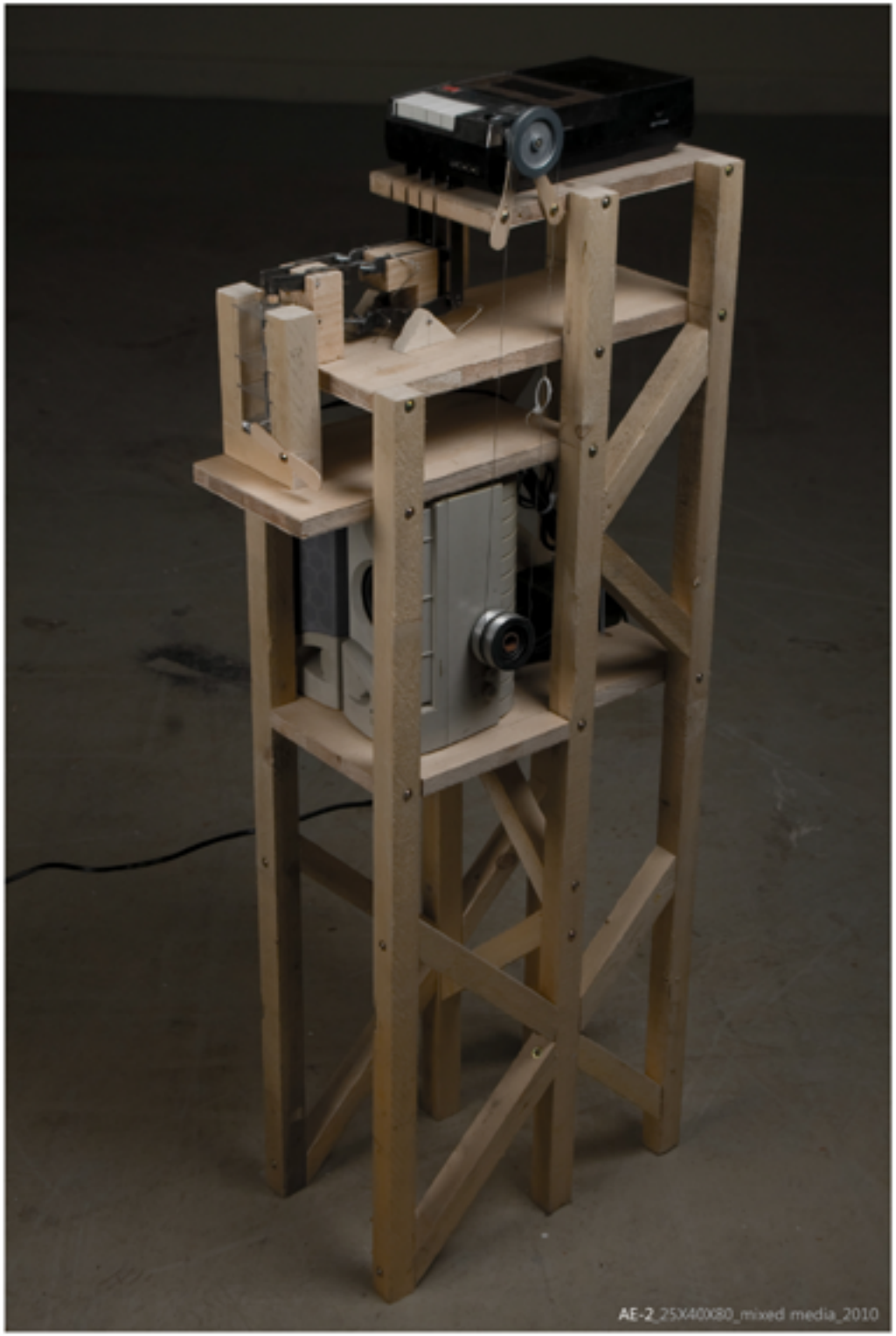


PM-1b_250X105X220_mixed media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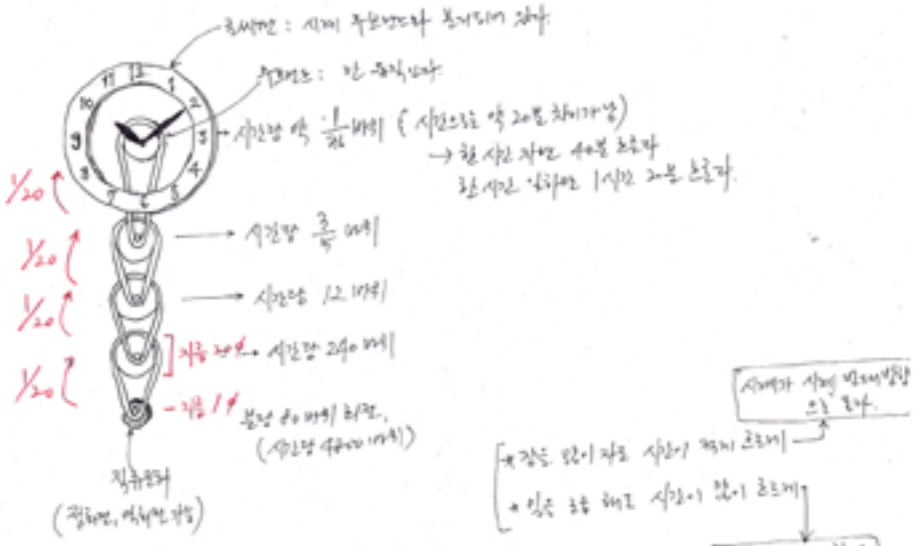
PM-1b_250X105X220_mixed media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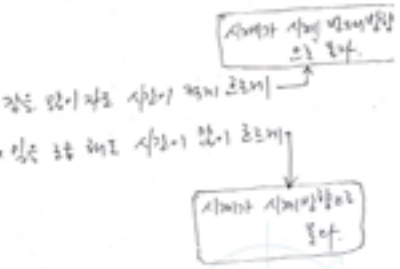
SUB. NO.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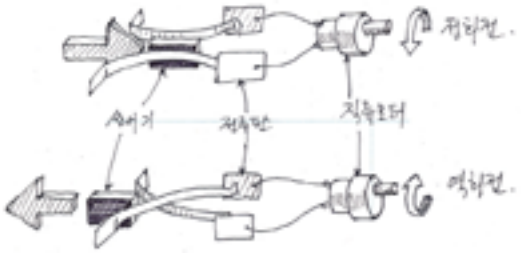


SUB. NO.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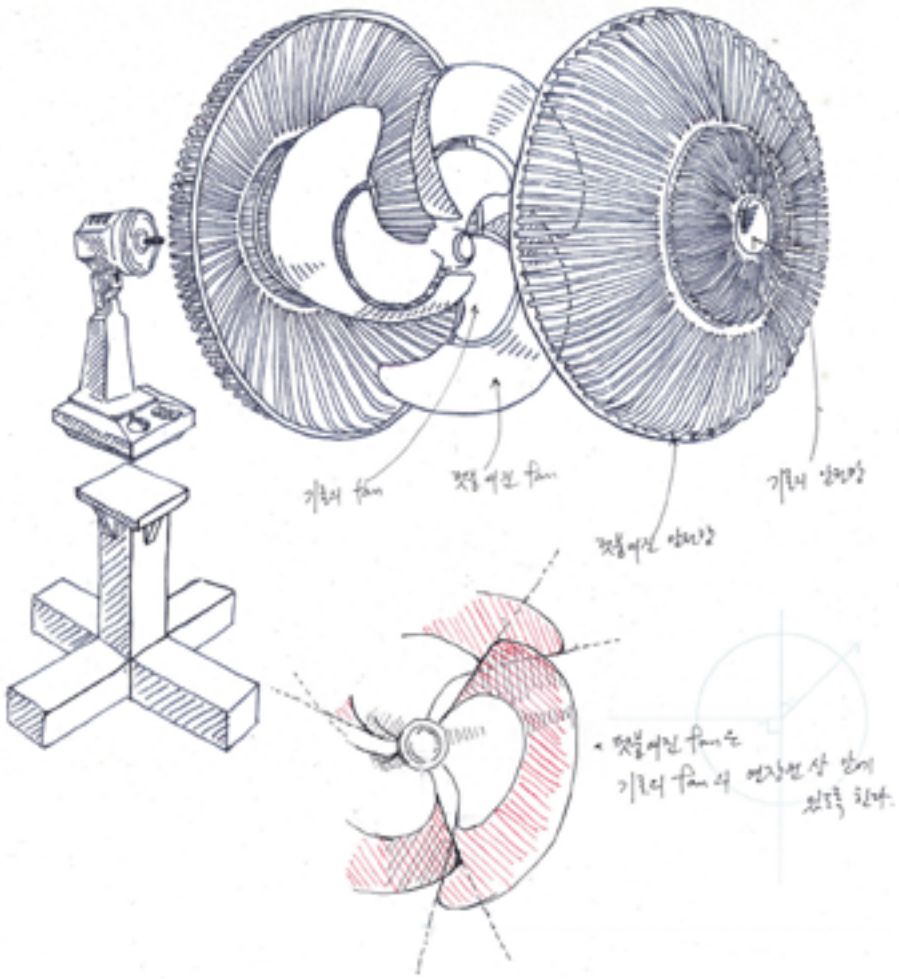




* 직류모터 정회전, 역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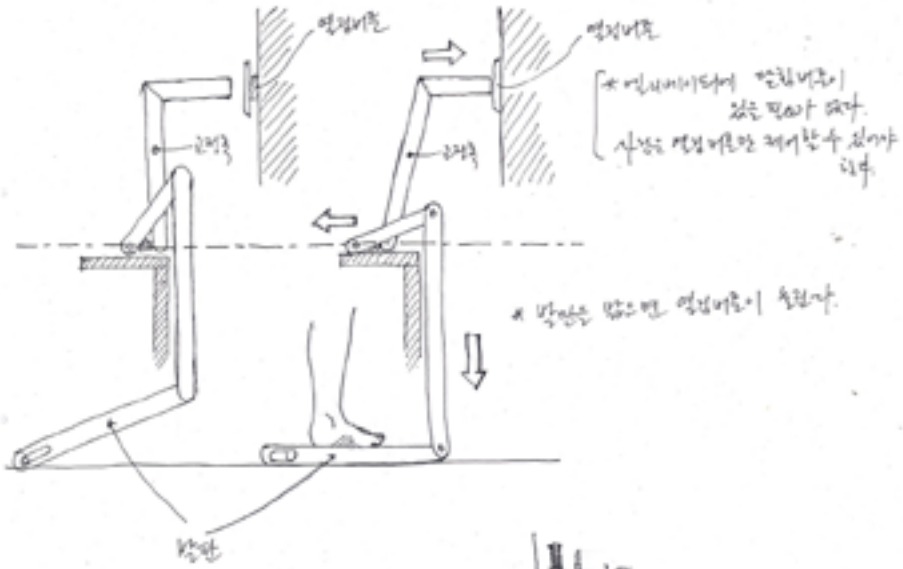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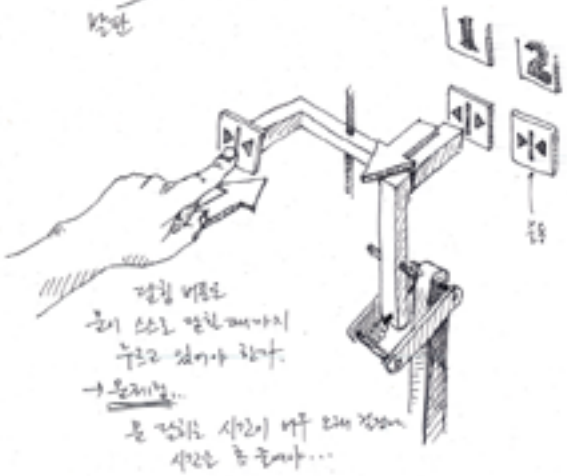
SUB. NO. DATE.


기존의 fan
첫날에 본 fan
첫날에 본 인테리어
기존의 인테리어
• 첫날에 본 fan은
기존의 fan의 변형된 상 만에
원동력 된다.

EEF-1_70X70X180_mixed media_2010

SUB. NO. DATE.


엔진버튼
엔진버튼
고정축
고정축
* 엔진버튼에 엔진버튼이 있는 편이 좋다.
사람은 엔진버튼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발판을 밟으면 엔진버튼이 출현.
발판


1
2
엔진 버튼으로
문이 스스로 열린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한다.
→ 문제점..
문 닫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시간을 좀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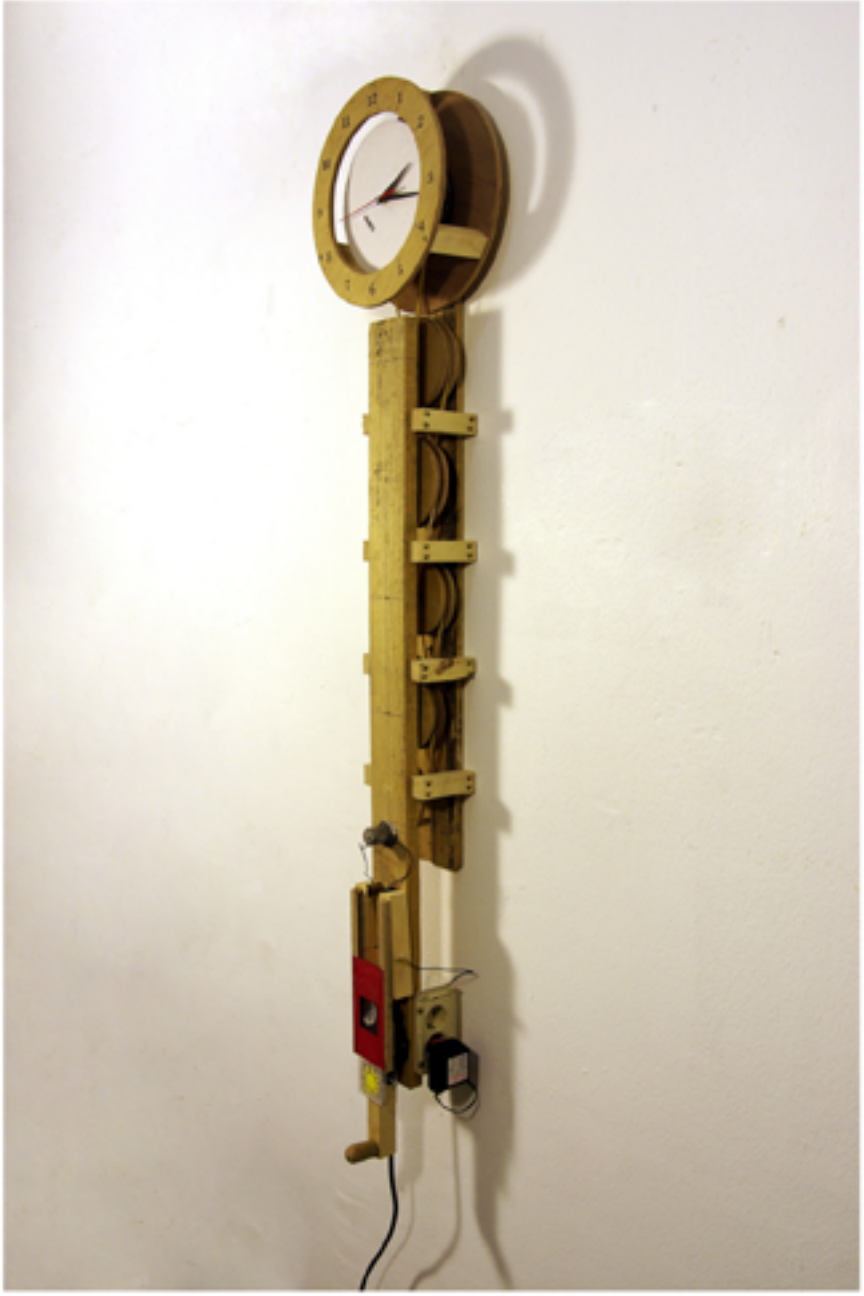
OB-ELEVATOR_installation_mixed media_2010
thanks to
이상협 강정호 박도윤 박재영
김재현 황인태 이석준 채길원
서나이 신종훈 이정우 박영철
강호연 노은대 최대봉 이은재
완전히 닫힐 때까지
누르시오
3 6
2 5
1 4

AE-1_70X40X85_mixed media

Automatic Door_installation_mixed media

2008

FW-1_30X120X15_mixed media



Anti Zoom Camera_installation_mixed media

테크놀로지의 변주

신승오
_덕원갤러리 큐레이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칙과 규약들을 습득하고 체득한다. 이렇게 체득된 것들은 우리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류의 이론들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주류의 이론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의 이론들과 법칙들의 그늘 속에서 가려져 우리는 비주류의 다양한 이론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최종하의 작업은 이러한 주류의 것들을 의심하고 이와는 중심에서 밀려난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주류와 동등하게 바라보고자 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의 시작점을 우리가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서 찾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대의 컴퓨터나 운송기구, 가전기기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진화는 한가지의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마치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더 이상 종을 보존할 수 없이 사라지듯이 다양한 이론들과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졌다. 그리고 유리한 이론과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테크놀로지가 주도권을 쥐었으며, 우리는 익숙해진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응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져버린 이론이나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 비실용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 혹은 황당무계한 것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의 이론들을 뛰어넘는 기발하고 참신한 것들도 많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주류의 산업이 되어버린 기존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경쟁에서 밀려버리면서 매우 실용적이기 못하며,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폐기되어 버린 것이다.

최종하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우선 기존의 제품들을 변형 시키거나 원래의 기능에 전혀 다른 장치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기계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칙이나 규약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PM-1b>는 휴지를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일정하게 잘라주는 기계다. 이 장치의 용도 자체는 매우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 동작하는 여러 장치들에 의해 나오는 작동 방식은 매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다.

<AE-2>는 낡은 카세트의 버튼을 누르면 조그마한 mp3가 작동되는 작품은 기존의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작동되던 과거와 현재의 제품을 작가가 창조해낸 새로운 프로세스로 연결시켜 또 다른 프로세스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그들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한 불필요한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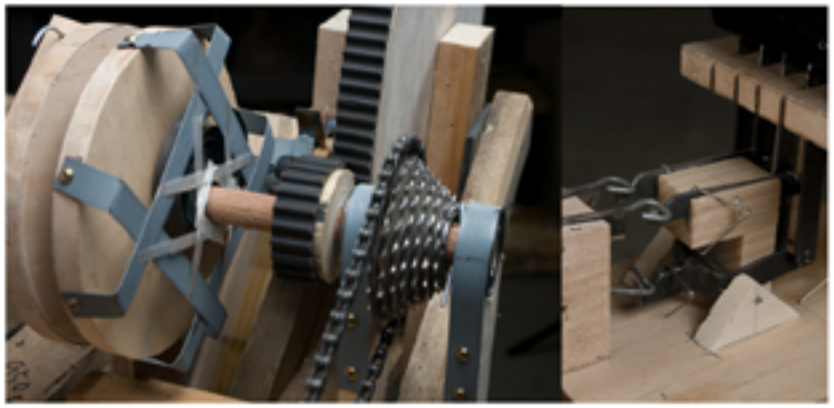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제품의 프로세스를 비틀고 꼬아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다. <OB-ELEVATOR>는 엘리베이터에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여 기존의 버튼의 열림과 닫힘 버튼을 바꾸어버린다. <EEF-1>의 선풍기는 기존의 선풍기에 팬을 크게 만들어 시원한 바람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해보면 오히려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선풍기처럼 조금이라도 크기의 변화나 장치가 덧붙여지게 되면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존의 프로세스의 허점을 보여준다. <FW-2>의 시계는 우리가 알던 시계의 개념이 아니라 작동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빨은 길게 가고 낮은 빨리 가는 자기의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 시계로 탈바꿈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시간을 부여한다.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것들의 프로세스를 비틀고 변화시켜 우리가 기존의 프로세스나 이론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작가는 얻기 쉽고 쓰기 편한 재료들을 수집해서 용도에 맞게 부품들과 구조들에 맞추어 나가면서 자기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스스로 기계의 구동원리를 공부하고 실습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작품은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기 까지 조그마한 물건이나 부품에서 시작하여 그것들에 하나씩 장치들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시행착오라는 과정의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모든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진화는 필요에 의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어 계속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이는 주류와 비주류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방식을 통해 다만 이들의 차이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에 있을 뿐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동용되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 동등하다고 말한다.

최종하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칙과 이론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비주류의 것을 그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들 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같이 라는 동섭적인 사고를 가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새로움 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나 다양한 이론들 간의 교집합이나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미 익숙한 것을 토대로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통섭할 수 있는 인식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비주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소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류와 비주류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체득되어야 한다. 작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식을 넓혀 줄 것이다. 이는 사회의 반응자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시선과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예술가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PM-2_mixed media_2010
PM-1b_mixed media_2010
AE-2_mixed media_2010



The Variation in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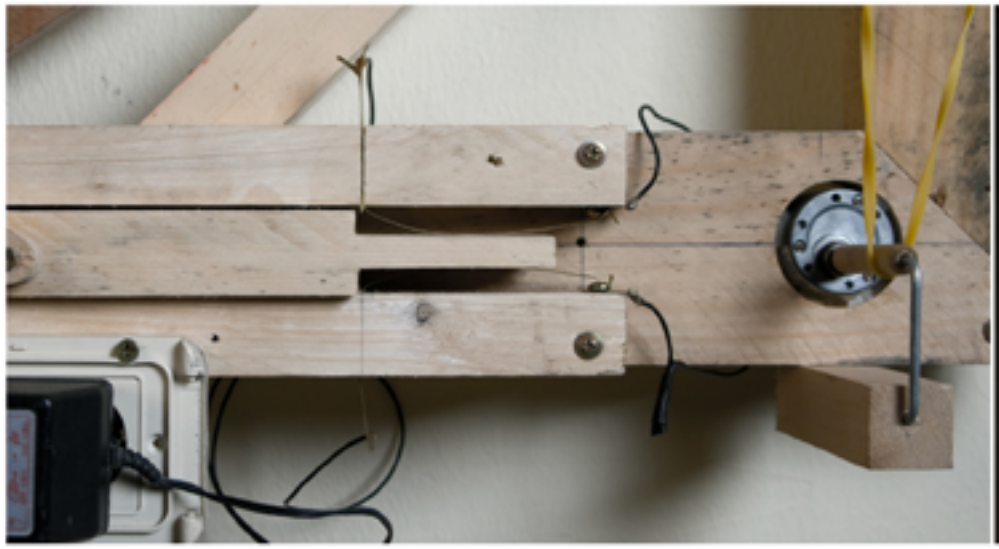
Shin Seung-oh
_Curator of Dukwon Gallery

We have acquired and learned through education and study the rules and regulations that form society ever since we were born. Those that have learned by this way are the theories of the mainstream that consists of our society. In the world, however, it is not that only the theories of mainstream exist. A large number of various thoseries in their own way exist in the world, but we can not recognize and also easily find the various theories of nonmainstream because they are hidden under the shadow of existing theories and rules.

Choe Jong-ha's works attempt to cognize those that are ousted from the center and to watch equally with the mainstream while they doubt those of the mainstream.

The artist is searching the starting point of these recognition in technology which we are closely using always. The technology has been existed from the age in which human had used the tools in the Old Stone Age and the Neolithic Era, and it has been variously developed to modern computers, transportation apparatuses and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Such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technology have been not achieved by one invention or discovery. Various theories and technologies have been created and then disappeared as if organisms disappear because they can adapt no longer themselves to environment and conserve their species. Therfore, the technology with influential theories of which were survived in practic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became to take the initiative, and we are using still with accepting and adopting the accostumed technology. The disappeared theories and technologies were not impracticqal or inefficient, or nonsensical in comparison with those that we are now using. The brilliant and refresh theories that jump over the existing those, also have been largely existed. Such theories were not only regarded to those which were very impractical and useless, but also disused, throwing out from competition by existing technologies which became to those of mainstream industries in econom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t that time.

Choe Jong-ha made the meaning of these technologies to change through various way such as that first, makes existing products to change, or to attach the entirely different device to original function. The first works is to humorously solve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ociety in which we are living through the works that make unnecessary machine and process. PM-1b is the machine which regularly cut the toilet paper so that it can be used in the toilet room. The use itself of this device is very convenient and resonable, but it is so very large as it can not actually come into the toilet room, and the operation method by several devices which are actuated by manually rotating its handle, is unnecessary and inefficient. AE-2 is the work which if the button of old casettee is pushed, a small mp3 is actuated, which is the work of the past which was actuated with the process contained in the existing products. The past product and the current one are reborn as the



another process, being connected by the new process that this artist created. These products, however, are unnecessary devices as long as their processes exist. The second works are those that make the new meaning by twisting and fidgeting the processes of existing products. OB-ELEVATOR is to install the simple device in a elevator, and its existing open button and close button are changed to the opposite function. The electric fan in EEF-1 is that made larger the blades of existing electric fan so that cool breeze more come out from them, but if actually operate it, cool wind does not come out from the fan. This shows the weak point of existing process that original funtion do not properly operate, if the size is changed, or some device are attached to existing process like as this elevator and the fan. The clock in FW-2 is one that is changed to the clock which can adjust operator own time so that it operates slower in night and faster in day depending on its operator's mind but it is not operated as the concept of general clock that we know. The artist gives the subjective time to us whom live in the objective time through such attempt. The artist talks how we unconciousely and blindly follow to the existing processes and theories by being twisted and changed the processes of existing those in various ways.

In these works, those that must also search are the process which makes these works. The artist creates his own processes, setting it into parts and structure according to the use after correcting materials that are easy to get and to use. For these processes, the artist performs the works, studing the operting principle of machines by himself, and repeating the practice and the trial and error. The works which are made through these processes consists of the results of the processes called the trial and error, starting from the motive what he attends to make, to complete one work, and beginning from small things or parts, and in form that devices are attached to them one by one. Thus all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echnology are the product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tinued trial and eror starting from pure motive by necessity. These are the necessary process literally to have both the mainstream and the nonmainstream. The artist talks that only their difference present in the products but not the processes through such way of working, and only difference how they are used in our society or not, and that they are equivalent.

Choe Jong-ha does not want that he drag down the rules and theories of the world in which we live in, and put on tose of nonmainstream in the position.

He only wants who we have the consilience of thinking in company with this and that but not all-or-nothing dichotomous division. Because the freshness is generating in unclear area between intersection or different things with each other among learning and various theories but does not generate being centered to one scholarship and theory. However, our brain recognizes the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at we alreay used to it. And therefore, we must prepare the recognition that can have the consilience always, and one's eyes and the cognition that equally watch the mainstream and the nonmainstream, listening to the few with the attention about the nonmainstream, should be learned. The artist will continuousely give such works to us in various ways and will broaden our recognition through the works. He shows us the artist's role that he thinks and seeks by suggesting such new one's eyes and way as an responder in the society and as a man among members living same age.

EEF-1_mixed media_2010
FW-2_mixed media_2010
AE-2_mixed media_2010